

천재와 바보, 그들의 차이는?

- 제목을 이렇게 지은 이유는, 이 영화의 주인공이 천재 수학자이자, 기존의 아담 스미스의 경제이론을 비판하면서 새롭게 만든 이론인 게임이론을 발표하여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사람인 '존'에 대해 다루는 영화이다. 이 영화에서 존은 천재 수학자이지만 사회성이 부족하고 사람들과 대화를 잘 못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또한 여성을 술집에서 유혹하는 과정에서 바로 자신의 목적인 섹스를 언급하는 등 인간관계에서는 바보로 느껴졌다. 비록 학문적인 천재지만, 인간관계에서는 바보의 모습을 보인 존. 천재와 바보의 차이를 중점적으로 글을 작성하고자 하였다.

개요 - 이 영화는 인간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이 영화에서는 주인공인 '존'을 통해 인간은 증명받는 대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이 영화에서는 말주변이 없던 존이라는 주인공을 통해 인간은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증명받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개요 -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는 무엇인가?

이 영화는 '정신건강'과 '수학 천재'의 복합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 인물의 사람과 우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다. 주인공 존은 수학 천재로 프린스턴 대학교 대학원에서의 생활 도중에 정신적 문제를 겪기 시작한다. 실존하지 않는 인물, 찰스 하먼이 그의 옆에 등장하여 친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상상 속의 정부 요원의 그에게 암호 해독을 요청한다. 점차 심해지는 증상으로 조현병에 걸리게 되고, 인슐린 주사와 약물치료를 받게 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존은 환영을 신경쓰지 않고 현실을 인식하게 되면서 그의 정신건강도 점차 회복된다. 끝내 그는 그동안 리만 가설을 푸는 데 성공한다. 이렇게 펼쳐지는 스토리를 통해 영화는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사람도 현실과의 조화를 이루면 그들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의문점 분석 - 이 영화를 보며 여전히 나에게 있는 의문점은 무엇인가?

일단 '존'의 경우는 수학 천재지만 사회성이 부족한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기존의 천재들을 보면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았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

- **아이작 뉴턴** - 뉴턴은 수학과 물리학 분야에서 천재적인 면을 보이지만, 사회적인 습성은 다소 복잡했다. 그리고 대인 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알려져 있다.
- **알버트 아인슈타인** -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으로 유명한 스위스의 물리학자이다. 아인슈타인은 어릴 때 사회성이 부족하고,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주었다고 알려져 있다.
- **니콜라 테슬라** - 발명가이자 과학자인 테슬라는 전자기학 분야에서 유명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개인적으로 매우 내성적이었고 사회적인 활동은 피하곤 했다.
- **파울 디랙** - 양자역학 분야에서 유명한 물리학자지만, 그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의 친구들이 부르던 별명은 무언의 디랙이라고 부르곤 했다.

존을 포함한 이 네 명의 천재들은 사회적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라고 한다. 여기서 의문점은 왜 천재들에게는 사회성이나 대인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인지 의문점이 있다. 사실 이러한 생각을 평소에 하고 살지는 않았으나, 이 영화를 보며 그러한 의문점이 더욱 생기게 되었다. 또, 가벼운 의문점 중 하나로 대인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은 천재들은 매우 많았는데 왜 존을 택하여 영화를 제작했는지도 궁금했다.

의문점 분석 - 내에 있는 어떤 것이 나로 하여금 그런 의문점을 갖게 했는가?

나의 관심 분야인 '양자역학'의 과학자들을 보면 참 천재들 같다는 생각이 든다. 원래 기존의 물리학 분야인 고전역학은 답이 바로바로 나오는 그런 학문이다. 하지만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은 처음으로 답이 나오는 학문이 아닌, 모든 현상을 '확률'로 설명한다. 그동안 나는 학문 자체만 봤지 과학자들의 배경을 보진 않았다. 그렇기에 이번 영화를 통해 내가 평소에 존경해오던 과학자들의 배경을 알아보고 싶어졌다. 또 어떤 이유에서 천재성과 사회성은 반비례하는지도 알고 싶어졌다.

공헌 및 비판 - 이 영화가 나 자신 또는 나의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는가?

일단 이 영화 자체만 놓고 보면 나의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는 않은 것 같다. 나는 물론 다른 학우들에 비해 좀 더 수학이나 물리를 잘하고, 심지어 프로그래밍도 잘해서 주변에서 칭찬은 많이 듣는 학생이지만 천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나의 상황에는 적절하지 않다. 다만 나의 중학교 친구 하나를 이해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듯하다. 그 친구는 책을 많이 읽는 친구였고 특히 성적은 가장 좋은 친구였고, 고등학교도 서울과학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등 워낙 뛰어난 학생이었다. 하지만 사회성은 정말 부족했다. 예를 들면 어떤 여학생 책상에 자신의 코딱지를 바르는 행동을 하거나, 자신의 코딱지를 먹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많이 한 친구였다. 당시 학급회장이었던 학생과 다른 학생들이 선생님께 사진을 찍어 민원을 넣는 등 그러한 행동을 제지하려 했으나, 증거가 있음에도 무조건적인 발뺌과 변명만 하였던 친구였다. 물론 다른 친구들과 대화도 마찬가지였다. 대화하는 도중 이상한 망상을 펼치거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도 하였다. 여러 사건도 많았지만, 공부도 잘하고, 심지어 수업 발표 시간 때는 깜짝 놀랄 정도로 수학을 잘 풀기도 하였다. 이렇듯 그 친구는 내가 주변에서 본 가장 천재적인 학생이었지만 그와 동시에 가장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성이 없고 정신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 학생이기도 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나도 어렸기에, 공부 잘하는 모습이 재수 없어 보였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더욱 쫓겨감만 들었다. 하지만 22살이 된 지금,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문득 떠오른 친구였다. 존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 만약 내가 술집에서 존이 나에게 유혹하는 말로, "나는 그냥 섹스나 하고 싶어"라는 말을 한다면 정말 뭐하는 사람인지 싶었을 것 같다. 하지만 존의 배경을 알고 나니 존이 이해됐다. 그 친구의 배경을 내가 자세히 알았더라면 아마 그 친구를 이해하지 않았을까 싶다. 앞으로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만나더라도 너무 이상하게 보지 말고, 그냥 살짝 다른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의 배경을 알고 이해하려 할 것이다.

공헌 및 비판 - 이 영화를 통해 얻게 된 새로운 시각 또는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다면 무엇인가?

이 영화를 통해 나는 사회성이 결여된 사람의 편견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유명한 범죄자들이 있다. 유영철이나 정두영 등이 그렇다. 이런 사회성이 결여된 사람은 사회에 나가면 안된다고 생각하던 사람이었고,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정신병원에 가두어 나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물론 정신병이 있는 사람 중에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도 있지만, 존과 같은 천재들이 있고, 무조건 편견을 가지며 의심해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하나의 사람이니 존중해줄 것이라는 마음이 생겼다.

공헌 및 비판 - 이 영화에 대하여 비판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비판할 만한 요소는 정말 없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영화’라는 특성상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간소화된 스토리텔링, 시간 압축, 캐릭터 표현, 감정적인 강조 등과 같은 특성으로 인한 차이점이 존재했다. 사실 이 영화는 존의 정신건강에 대해 다루고, 이를 통해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 판단되기에 몇 가지 비판할 요소를 발견했다.

먼저, 여성 캐릭터와 관련한 부분이다. 영화에서 여성들은 대부분 주인공 존의 사랑이나 동경의 대상으로 나타나며, 그들의 역할이 비교적 제한적으로 그려졌다고 생각한다. 이로 인해 여성 캐릭터들의 개발과 깊이가 부족하다고 느껴졌다.

또한 존은 수학자로서 중요한 업적을 이루어냈지만, 영화에서는 그의 수학적 업적에 대한 내용이 부족했다. 수학적 업적을 강조하는 측면보다는 정신건강 문제와 그의 개인적인 삶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좀 더 깊은 정보와 강조가 필요했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뷰티풀 마인드’는 감동적이고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여성 캐릭터와 수학적 업적에 대한 부분에서 더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고 생각한다.